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임효정·한정미 고향에 첫 금 선물

〈양궁: 전남체중〉 〈육상: 광주체중〉

전남 볼링 이영승·유도 강유정 금메달 사냥 성공
광주 태권도 김영석·김상아 나란히 금빛 발차기

전국소년체전

양궁의 임효정(전남체육중 3년)은 여중부 50m종목에서 336점을 기록하며 전남의 첫금을 쐈다. 100m를 12초30에 주파한 육상의 기대주 한정미(광주체육중 2년)는 광주의 첫 금메달 주인공이 됐다.

10일 야구, 핸드볼, 축구 종목 등의 사전경기를 시작으로 몸을 풀었던 전국소년체전이 11일 본격적인 순위 레이스에 들어갔다. 16개 시·도를 대표하는 스포츠 꿈나무들은 14일까지 나흘간 열전을 인다. 금메달 27개, 은메달 29개, 동메달 37개를 목표로 16개 시·도팀 중 8위를 노리고 있는 전남은 금메달과 은메달을 동시에 목에 건 양궁 임효정의 깜작 선전으로 순항을 시작했다.

우승 후보였던 볼링 여중 개인전의 이영승(곡성중), 여중부 유도 -42㎏ 강유정(무선중)도 금메달 사냥에 성공했다.

이날 전남의 히어로는 임효정이었다. 임효정은 대전체육고 양궁장에서 열린 양궁 여중부 60m에서 341점을 기록하며 팀에 첫 메달을 안겨준 뒤, 이어 진행된 50m에서 346점을 쏴 금메달까지 목에 걸었다. 바람이 많이 부는 악조건 속에서도 두 개의 메달을 수확한 임효정은 30·40m와 개인종합, 단체전에서도 출전해 다관왕에 도전한다.

한 자릿수 순위 진입을 겨냥하고 있는 광주는 육상에서 금메달 스타트를 끊었다. 4월 광주에서 열린 전국꿈나무선수선발육상경기대회 여중 2학년부 100·200m 결승에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던 한정미는 12일 한밭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육상 여중 100m에서도 가장 빠른 질주를 선보였다.

12초30에 결승선을 통과한 한정미는 주종목인 200m에서 두 번째 금메달에 도전한다.

태권도에서도 두 개의 금메달이 나왔다. 천곡중의 김영석과 김상아는 남중 플라이급과 여중 밴텀급에서 금빛 발차기를 선보이면서 광주는 금메달 두 개를 추가했다. 전남과 광주의 첫 맞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축구에서는 전남이 승리를 거뒀다. 광양 제철중은 월드컵보조구장에서 열린 광주 북성중과의 '남도더비'에서 후반 두 골을 몰아넣으며 2-0으로 승리를 거뒀다.

/대전=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체전 소식

전남 도체육회, F1대회·여수박람회 홍보

체육인들의 큰 잔치에서 전남도체육회의 전남 알리기가 한창이다.

전남도체육회가 제39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2010년 F1코리아그랑프리대회와 2012년 여수해양박람회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서정복 사무처장은 F1 홍보 부채 및 팸플릿을 배부하는 F1 홍보대사를 자처하며 대회 입장권 판매를 위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

체육회는 또 본부 숙소 및 경기장에 F1대회 홍보 현수막을 걸고, 해양박람회 홍보 볼펜 등을 배부하면서 타 시·도체육회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다.

스포츠 인권향상 캠페인

대한체육회는 대전광역시에서 열리는 제39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기간에 종목별 경기장을 방문해 스포츠 인권 활동을 펼친다.

대한체육회 선수권익보호팀은 대회 개막을 하루 앞둔 10일부터 농구와 야구 종목 경기장을 찾아가 스포츠人권익센터를 알리는 홍보물과 함께 센터에 대한 인지도 조사를 했다. 또 스포츠 인권 캐릭터와 함께 하는 무료 즉석사진 촬영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통해 스포츠 인권 향상 캠페인도 시작했다.

/김여울기자 wool@

태풍 덴무에 날아간 '꿈나무들의 꿈'

순천 이수중 야구 우천 경기 취소로 추첨패
"경기장 한번 밟지도 못했는데" 눈물의 귀향

태풍 덴무가 뿌린 비에 야구 꿈나무들이 눈물을 흘렸다.

11일 전국소년체전이 개막하면서 대전 곳곳에는 체육 꿈나무들의 힘찬 플레이가 한창이다.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은 열정적인 무대가 이어지고 있지만 경기장 한 번 밟지 못하고 짐을 꾸린 선수들도 있다.

사전경기가 열린 10일 전남 야구 대표로 대전을 찾은 순천 이수중 학생들은 방망이를 잡아보지도 못했다. 태풍이 몰고온 비에 이날 오후 4시 예정된 충북 세광중과의 경기를 치를 수 없게 되면서 승패를 결정짓는 추첨에 나선 것이다.

다른 종목과 달리 경기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많은 야구는 우천순연이 불가능해 추첨을 통해 승자를 가리게 되어 있다.

추첨 방식은 1~9번까지 엔트리에 등록된 순서대로 양팀 18명의 선수가 돌아가면서 승패가 적힌 종이를 뽑는 것이다. 양팀 감독과 대회 임원진 입회하에 진행된 추첨에서 이수중 선수들은 승 3장, 패 6장을 뽑았다. 순천 이수중의 3-6 패배였다.

이수중이 세광중보다 한 수위 전력이라는 평가였지만 추첨패를 당한 이수중은 경기 한 번 치르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꿈나무들의 아쉬운 눈물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이수중 경기 이후 예정됐던 10일 오후 세 경기와 11일 오전 9시 경기였던 순천 북초와 울산 대현초의 경기까지 모두 5경기가 추첨패로 당락이 갈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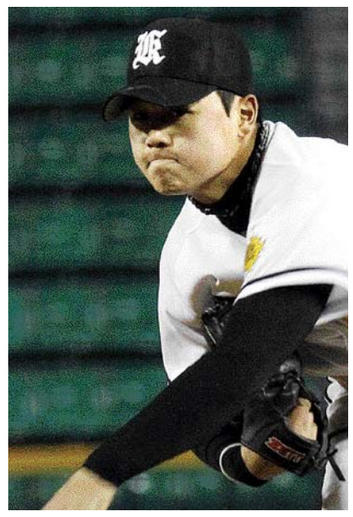
이수중 형들과 달리 순천 북초는 약세로 전망됐던 경기에서 5-4 추첨승을 거뒀지만 울산에서 달려온 대현초 학생들에게는 아쉬운 결과였다.

초등부 강력한 우승후보였던 대구 남도초는 제주대표에 3-6으로 추첨패했다.

또 다른 우승후보 서석초는 태풍의 영향권에 접어들긴 전인 10일 오전 경기에서 이겨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추첨 승부를 피해 갈 수 있었다.

/대전=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특급좌완' 광주일고 유창식 한화서 '찜'



프로야구 16일 신인지명

2011년 프로무대에 오를 신인 선수들이 결정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16일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2011년 프로야구 신인 지명회의를 개최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면드래프트제가 시행되면서 이번 지명회의에서는 지역 연고와 상관없이 선수 선발이 이뤄진다.

1라운드에서는 전년도 성적 역순으로 한화가 가장 먼저 선택권을 갖게 되며, 지난해 우승팀 KIA는 전체 8번으로 선수를 지명한다.

2라운드에서는 전년도 성적순(KIA, SK, 두산, 롯데, 삼성, 넥센, LG, 한화)으로 지명이 이뤄지는 등 홀수 라운드는 역순, 짝수 라운드는 성적순으로 총 10라운드까지 진행된다.

2011시즌 신인지명 대상자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 예정자를 포함하여 약 700여명이다. 올해 최대어로 꼽히는 광주일고 투수 유창식은 가장 먼저 1라운드 1차 지명권을 행사하게 되는 한화의 유니폼을 입게 될 전망이다.

이번 지명회의에는 지명대상 선수와 야구팬들의 참석이 가능하며 MBC-SPORTS+채널에서 생중계된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NAVER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지명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금 과녁을 향해…

11일 대전체육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제39회 전국 소년체전 양궁 증등부 남여 경기에서 16개 시도 대표들이 일제히 활을 당기고 있다.

/대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